

“벌써 슬프다” ‘채비’, 눈물장전 아름다운 이별



올 가을 관객들을 눈물로 적실 또 한 편의 따뜻한 영화가 온다.

고두심·김성균·박철민·김희정 등 출연 화제 조금 특별한母子 이별 준비, 웃음·감동 전달

‘채비’는 30년 내공의 프로 사고 붓치 인규를 24시간 케어하는 프로 잔소리꾼 엄마 애순 씨가 이별의 순간을 앞두고 홀로 남은 아들을 위해 특별한 체크 리스트를 채워가는 과정을 그린 휴먼 드라마다.

7년 만에 스크린 복귀를 선언한 고두심과 총무로의 핫한 배우 김성균, 그리고 박철민, 김희정의 참여로 화제가 되고 있는 이번 작품은 조금 특별한 모자(母子)의 분주한 이별 준비를 따뜻한 시선과 유쾌한 톤으로 그려내 웃음과 감동을 동시에 전한다.

조영준 감독은 “저희 어머니가 쓰러지신 적이 있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프시던 ‘엄마 엄마 하고 아파하셨다’며 ‘엄마가 엄마엄마 하고 우는 걸 보고 저희 엄마도 누군가의 딸이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영화를 기획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이번 영화에서 고두심은 세상 해맑은 아들 인규의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하루 24시간이 모자라고 억척스럽다고 말할 정도로 생활력이 강한 엄마 애순, 김성균은 지적 장애를 가진 아들 인규로 분해 따뜻한 호소를 맞았다.

오랜만에 스크린으로 컴백하게 된 고두심은 “오랜만의 영화라 많이 떨린다. 요즘 좋은 작품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해서 더 많이 떨린다”며 “우리 작품은 보면, 타당성이 있다. 누구나 남녀노소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영화다”고 말했다.

이어 “극중 아들이 지적장애를 가진 인물인데 그 아들을 두고 엄마인 내가 먼저 떠나야 임종이다. 울퉁은 자식이었으면 그래도 안도의 숨을 쉬면서 갈 수 있을텐데 부족한 아들을 홀로 남겨두고 간다는 것이 어떤 부모도 마음이 아플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욱 재밌게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더욱 재밌게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더욱 재밌게 만들고 싶었다.”

‘채비’는 무엇보다 엄마 고두심과 아들 김성균의 케미가 빛날 작품. 이진부터 김성균을 눈여겨 봐 왔다는 고두심은 “사실 김성균 씨가 얼굴이 굉장히 잘생긴 혼남은 아니지 않나. 그런데 몸에서 그런 (잘생김이) 풍겨져 나오더라”고 진심을 표했다.

또 “드라마(‘응답하라’ 시리즈)에서 아버지 역할이었는데 이 나이에도 잘 해내는 걸 봤다. 연인 관계 역할까지 해내는 것을 보는데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 순수한, 때 묻지 않은 자연스러움을 속에서 끄집어 내는 걸 보고 관찰하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번에 아들로 하게 됐다고 해서 더 애착을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반면 고두심은 현장에서 모두의 ‘엄마’였다.

김성균은 “고두심 선배님은 진짜 엄마같았다. 현장 스태프들 모두에 게 엄마같은 존재였다”며 “무엇보다 선배님은 모두가 배고픈 모습을 못 보신다. 항상 입에 음식을 넣어주셨다”고 귀띔했다.

고두심과 드라마 ‘우리 감수이’를 함께했던 유신은 “고두심 엄마와 드라마도 8개월 간 함께했는데 각종 떡과 과일, 지역 특산품이 올라왔다”고 전했다. 박철민 역시 “고두심 선배님의 집이 어떤 집인지 궁금했다. 얼마나 돈이 많은지, 음식이 남아도는지 궁금했다. 늘 희식 자라도 만들어줬다”고 고마움을 드러냈다.

이날 제작보고회에서는 영화 스틸 중 고두심의 장례식 장면이 공개돼 이목을 집중시켰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 인규(김성균 분)와 울고 있는 딸 문경(유신 분)의 모습이 대조적이었다.

유신은 “나는 엄마와 각별한 시간이 없던 딸 역이다. 현실 속에서 너무 부담없는 배우들의 유머 때문에 힘들었다. 혼자 애써 몰입하는 나혼자의 싸움이였다”고 토로했다.

김성균은 “인규가 청개구리 같은 자식이다. 엄마가 항상 밝게 살아라 라고 하셔서 엄마가 돌아가셔도 웃는다”며 애뜻함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고두심은 ‘아이 캔 스피크’ 나문희, ‘희생부활자’ 김혜숙 등 최근 총무로를 활출하고 있는 중년 여배우들의 활약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고두심이 그 방점을 찍을 전망이다.

고두심은 “코믹하면서도 진지한 ‘아이 캔 스피크’는 나문희 선배에게 딱 맞는 역할이었다. 김혜숙 영화는 아직 못봤지만 정말 연기를 잘하는 후배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연배의 배우들이 현장에서 밀리지 않고 활동한다는 것 자체가 기분 좋은 일이다. 경쟁자들이 많으면 더 신이 난다. 우리 것이 안되면 알기 싫은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힘이 난다”고 강조했다.

보기만 해도 슬프고 보기만 해도 따뜻한 고두심과 김성균의 아름다운 이별이 담긴 눈물 장전 프로젝트 ‘채비’는 11월 9일 개봉한다.

‘이번생X변혁X반지하’, 노오력 세대 드라마 뜨는 이유



청춘들의 ‘이쁜’ 현실을 그린 드라마들이 연이어 제작되며 공감과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tvN 월화드라마 ‘이번 생은 처음이라’와 14일 첫방송한 tvN 토일드라마 ‘변혁의 사랑’은 오늘 날 젊은 세대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가감없이 그려내 ‘웃픈’ 공감을 불러일으켰다는 평을 받고 있다.

여기에 19일 오전 11시 첫 공개되는 스튜디오 온스타일의 디지털 드라마 ‘오! 반지하 여신들이여’가 합류, 청춘들의 현실 공감 드라마 라인업을 완성시키며 시청자들에게 끝없는 즐거움을 전할 전망이다.

그리스 여신들의 생활밀착 판내폴폴 판타지 ‘오! 반지하 여신들이여’

19일 오전 11시 첫공개되는 스튜디오 온스타일의 디지털 드라마 ‘오! 반지하 여신들이여’(기획 김기운, 극본 이랑 황국영, 연출 이랑 김기운)는 사랑과 평화를 전하기 위해 한국에 온 네 명의 그리스 여신들이 정체를 숨기고 서울 망원동 반지하에 살면서 벌어지는 판내폴폴 판타지를 그린다.

하연수(이리스 역), 소진(메티스 역), 차정원(페이토 역), 해령(오지스 역)이 4인 4색 여신으로 변신한다. 이들은 사랑과 평화를 전하려는 거국적 목표를 갖고 한국에 왔지만,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텔레마케터 등 생업전선에 뛰어들며 서울 살이의 민낯이 있음을 보여줄 예정이다.

네 명의 여신들이 하늘에서 반지하로 떨어져 현실적으로 보여줄 판내나는 생활밀착형 코미디가 기대를 모은다. 19일 오전 11시 디지털 첫공개.

하우스푸어와 홈리스의 수지타산 로맨스 ‘이번 생은 처음이라’

tvN 월화드라마 ‘이번 생은 처음이라’

이랑(극본 윤난중, 연출 박준화)는 집 있는 달팽이가 세상 제일 부러운 ‘홈리스’ 정소만(윤지호 역)과 환관만 내 집인 ‘하우스푸어’ 이민기(남세희 역)가 한집에 살면서 펼쳐지는 수지타산 로맨스를 흥미로운 이야기로 선보인다. 생활의 가장 기본 ‘내 집 마련’에서 시작된 청춘들의 인생과 연애, 결혼, 직업 등 현실적인 고민을 유쾌하게 풀어내고 있다.

지난 방송에서 짝사랑에 실패하고 ‘나이 서른에 이게 뭐하는 것이냐’며 꾸짖히는 정소만에게 이민기가 건넨 ‘건투를 바랍니다. 이번 생은, 어차피 모두 처음이니까’라는 대사는 시청자들도 위로하는 명대사로 퍼졌다. 파란 현실을 살아가며 지친 청춘들에게 공감을 이끌어냈다는 평. 앞으로 이들의 현실 반영 수지타산 로맨스가 어떤 공감과 위로를 그려낼지 주목된다. 매주 월,화요일 오후 9시 30분 tvN 방송

생활력 제로부터 맨발까지 세

상 순수한 것들의 노오력 ‘변혁의 사랑’

tvN 토일드라마 ‘변혁의 사랑’(극본 주현, 연출 송현욱 이종재)은 백수로 신분 하락한 생활력 제로의 재벌3세 최시원(변혁 역)과 고학력·고스펙의 생계형 프리터족 강소라(백준 역), 그리고 금수저를 꿈꾸는 엘리트 공병(권재훈 역) 세 청춘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코믹 반란극이다.

지난 방송에서 프로 알바걸 백준역을 맡은 강소라는 하루에 3개씩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불합리한 상황에 기죽지 않는 모습을 보여 호평을 받았다.

특히 호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억울하게 도둑으로 몰렸을때 오히려 ‘갑’인 고객에게 사이다 일침으로 통쾌함을 줬다. 잘못된 틀을 바꾸지 않은 채 청년들에게 노오력만 강조하는 세상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변혁’을 일으키는 도전기로 기성세대의 선입견과 통념을 비틀며 속 시원한 웃음을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 매주 토요일 오후 9시 tvN 방송.

청춘들의 이쁜 현실이 드라마의 소재로 등장하는 것에 대해 방송계 관계자는 “기반한 현대 사회에서 청춘 자신들은 물론 삶의 무게를 짊어진 기성세대들도 청춘들의 판내나는 현실과 이쁨에 공감하고 있다”며 “사회에 슬픈 단면이지만 어둡게만 조명하는 것이 아닌, 희망과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아 힘든 현실에도 웃음을 전하는 드라마들이 시청자들의 공감대를 자극하며 주목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방탄소년단, 美 빌보드 차트 4주 연속 진입



‘빌보드 200’에서 15위를 차지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주 해당 차트 35위에서 20계단 뛰어오른 15위를 기록하며 빌보드 메인차트에서 역주행 신화를 썼다.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앨범을 미국 아마존, 타겟(Target), 베스트 바이, 월마트 등 현지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공식 판매했다.

소속사 측은 “미국 내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앨범 판매 집계 최근 차트에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싱글와이프, 야심찬 포문→유종의 미



속내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콘셉트의 프로그램이다.

방송 후 남편들은 그동안 몰랐던 아내들의 모습을, 아내들은 ‘아내DAY’를 통해 용의와 일에 치여 살던 일상의 해방을 누리며 시청자들의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시청률과 화제성에서도 시즌2의 활약을 충분히 기대해볼 만한 수치를 보였다. 첫 회부터 분당 최고 시청률 10%에 육박했던 ‘싱글와이프’는 방송 내내 안정적인 시청률로 고정 팬층을 확보했고, 실시간 검색어와 화제성 지수에 있어 상위에 랭크되며 인기를 이어 갔다.

惠山이 바라본 오늘의 운세 2017년 10월 19일 목요일 (음력 8월 30일)

| | | |
|--|---|---|
| <p>▶ 쥐띠 36년생 긍정적으로 .48년생 믿음을 유지하면 복을 받는다.60년생 뜻밖의 재물복이 있다.72년생 교통사고에 대비하라.84년생 책임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p> | <p>▶ 용띠 40년생 .52년생 노력과 이득이 비례한다.64년생 주위의 도움으로 일이 성사된다.76년생 작은 성과에도 크게 만족해라.88년생 첫술에 배부르지 않는다.</p> | <p>▶ 원숭이띠 32년생 배후는 마음을 길러라.44년생 건강에 더욱 유념하라.56년생 이사에 신중하라.68년생 끝까지 밀고 나가라.80년생 열심히 하면 진로 걱정은 없다.</p> |
| <p>▶ 돼지띠 37년생 귀인을 정성껏 맞이하라.49년생 믿음아래 덕을 받는다.61년생 목표를 크게 잡고 멀리보라.73년생 근신하고 자숙 할일이 생긴다.85년생 합심하면 이득이 크다.</p> | <p>▶ 호랑이띠 41년생 배려하는 마음을 길러라.53년생 건강에 더욱 유념하라.65년생 이사에 신중하라.77년생 끝까지 밀고 나가라.89년생 열심히 하면 진로 걱정은 없다.</p> | <p>▶ 닭띠 33년생 귀인을 정성껏 맞이하라.45년생 믿음아래 덕을 받는다.57년생 목표를 크게 잡고 멀리보라.69년생 근신하고 자숙할일이 생긴다.81년생 합심하면 이득이 크다.</p> |
| <p>▶ 양띠 38년생 외출을 삼가라.50년생 노력한 만큼 성과가 보인다. 62년생 주위의 도움으로 일이 성사된다.74년생 작은 성과에도 크게 만족해라.86년생 첫술에 배부르지 않는다.</p> | <p>▶ 말띠 42년생 구설수에 조심하라.54년생 금전거래에 주의하라.66년생 누적된 불만을 부드럽게 처리하라.78년생 순풍에 돛을 높이 올린다.90년생 욕심을 버려야 뜻은 이룬다.</p> | <p>▶ 개띠 34년생 화를 다스리고 건강에 유의해야한다.46년생 부부의 정이 더욱 돈독해진다.58년생 문서 계약운이 있다.70년생 손재수에 조심해야한다.82년생 꿈을 잡지마라.</p> |
| <p>▶ 토끼띠 39년생 만사가 해결된다.51년생 산행을 삼가라.63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75년생 이거다 싶으면 밀고 나가라.87년생 사소한 감정에 주의하라.</p> | <p>▶ 원숭이띠 43년생 재물을 잘 관리하라.55년생 새로운 사람을 소개 받는다.67년생 부부관계를 원만히 하라.79년생 기다림을 알아라.91년생 과한 욕심을 버리고 함께 하는 마음을 가져라.</p> | <p>▶ 돼지띠 35년생 털어낼 것이 있다면 바로 실행하라.47년생 큰 수확을 이룰 것이다.59년생 계약은 절대 안된다.71년생 회비가 교차하니 무리수는 금물이다.83년생 지리를 넘겨주지 않으려거든 멈추지 마라.</p> |

★ 헤산철학연구원 010-2622-2350 ★